

《內閣訪書錄》 解題

鄭 演 植

奎章閣 설립 초에 중국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편찬한 중국본 도서의 목록 겸 해제집이다. 2권 1책의 필사본으로서, 序文이나 跋文 등은 물론 편찬자나 편찬된 연도를 간접적으로 밝혀줄 만한 부수적인 기록이 전혀 없다.

正祖는 東宮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여 慶熙宮 尊賢閣⁽¹⁾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 옆에 별실을 마련하여 여러가지 책을 모아두고 ‘貞蹟堂’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貞蹟堂이 정조 즉위 초에 奎章閣과 함께 설립된 규장각의 부속서고 西庫·閱古觀·皆有窩 등의 母體로서 정조가 왕위에 즉위한 후에는 장서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에 進賀使 겸 謝恩使로 淸에 파견된 정사 李澂과 부사 徐浩修로 하여금 《四庫全書》를 사오게 하여 燕京에서 銀子 2,150냥을 주고 《四庫全書》의 底本인 《圖書集成》 5,022책을 사들였고, 弘文館에 소장되어 있던 도서와, 또 明나라로부터 기증받아 江華府 行宮에 보관해 두었던 도서 여러 種을 貞蹟堂으로 옮겨오게 하여 장서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도서들을 보관해 둘 곳을 따로 마련하여 昌德宮 後苑 宙舍樓 일대에 閱古觀·皆有窩와 西庫가 지어지고, 慶熙宮 貞蹟堂의 도서들은 창덕궁으로 옮겨져, 중국본 도서는 閱古觀·皆有窩에, 한국본 도서는 西庫에 보관되었다. 그 결과 《正祖實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山經, 海志와 秘牒을 비롯하여 전에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여러 희귀한 책들이 수천 가지나 확보되었고, 장서수는 중국본이 약 2만여권, 한국본이 약 1만여권에 달했다고 한다.⁽²⁾ 그 후 1781년(정조 5)에는 徐浩修로 하여금 중국본 도서들을 정리하여 《奎章總目》을 짓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편찬 연도는 정조 즉위초부터 《奎章總目》이 완성되는 1781년 사이에 해당된다.

이 《內閣訪書錄》은 청나라에서 책을 사들일 때에 규장각 신하들로 하여금 참고자료로 살펴보고도록 하기 위해 이때를 전후하여 편찬된 것으로서, ‘內閣’이란 奎章閣의 별칭이고, ‘訪書錄’이란 아마도 唐의 《訪書錄》이나 宋의 《求書錄》을 모방하여 편찬되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필자 : 규장각도서관리실 연구원

(1) 선왕들이 동궁 시절에 書齋를 열었던 곳으로서 위층은 宙舍樓라 하였는데, 규장각의 본관 건물인 宙舍樓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2) 《正祖實錄》 권11 정조 5년 6월 庚子條

又做唐宋故事 撰訪書錄二卷 使內閣諸臣 按而購買 凡山經海志秘牒 稀種之昔無今有者 無慮數千百種

책의 내용은 清代까지의 역대 중국 도서들을 經史類와 子集類로 나누어 각각 1권으로 하여 모두 2권 1책으로 엮은 것이다. 그런데 각 類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책의 해제 말미에 “以上 經類”, 또는 “以上 史類” 등으로 細註를 기입하여 다시 각 卷 안에서 經類와 史類, 子類와 集類를 각기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類 내에서도 무작위로 나열하지 않고 《四庫全書》의 분류 방식에 따라 類別로 묶어 도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컨대 經類에서는 易, 書, 詩, 周禮, 儀禮, 禮記, 通禮, 春秋 등의 순으로, 子類 내에서도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道家類, 釋家類 등의 순으로 나열하여 소개하고 있다.⁽³⁾ 대상 도서는 經類에 134종, 史類에 64종, 子類에 124종, 集類에 63종의 圖書가 수록되어 모두 385종이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은 드물고 희귀한 책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은 이 책의 성격이나 편찬의도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각 책마다 책 이름, 卷數, 撰者와 아울러 간단한 解題를 덧붙여 두었는바, 때로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책 이름만 기재된 것도 있다. 序文과 跋文 등이 없는 것은 아마도 이 책이 완전한 격식과 체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참고 자료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수록된 도서들은 대부분이 《浙江採集遺書總錄》에서 발췌된 것이다. 《浙江採集遺書總錄》은 清代에 乾隆帝의 명을 받아 兵部尙書 鍾音, 富勒渾, 兵部侍郎 熊學鵬, 三寶, 內閣學士 王杰 등 5인을 大總裁로 하여 수십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완성된 清代 최고의 목록학 관계 도서이다. 《內閣訪書錄》에 經類의 《易象正》, 子類의 《農桑通訣》 등 몇 종류의 책에 대해서는 책 이름만 적혀 있고 해제가 붙어 있지 않은 것도 《浙江採集遺書總錄》에 해제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宋代 陳振孫이 지은 《直齋書錄解題》 등 몇 종류의 목록학 관계 서적들이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예컨대 經類의 《周易義海撮要》나 子類의 《素問》(《黃帝內經素問》)에 대한 해제에서 “陳振孫曰…”이라 하여 《直齋書錄解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해제는 《浙江採集遺書總錄》나 《直齋書錄解題》 등에 기록된 해제를 요점만을 추려 간략하게 적고 있다. 다만 子類의 《難經》과 같은 몇 종류의 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解題를 작성하고 있다.

《浙江採集遺書總錄》과 《直齋書錄解題》는 1781년(정조 5)에 편찬된 《奎章總目》의 凡例와 1795년(정조 19)에 편찬된 《鑿板考》의 凡例에도 소개된 책으로서 정조가 동궁으로 있던 1774년(건륭 39)에 《浙江採集遺書總錄》의 간행과 《直齋書錄解題》의 重刊이 이루어졌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浙江採集遺書總錄》에 정조의 號인 ‘弘齋’ 印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가 동궁 시절에 이미 위와 같은 중국의 도서목록들을 구입하여 읽고서는 관심이 있는 도서들의 목록을 작성해 두었다가 즉위한 후에 그 간략한 해제를 덧붙이게 하여 규장각신하들로 하여금 도서구입에 참고하게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3) 각 類 내의 도서분류 배열 방식은 《四庫全書》의 체계를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浙江採集遺書總錄》의 체계를 따른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